

## 비전2030준비 '미래기획위' 출범

### 중장기적 대학비전 마련해 내년 1월 보고서 발표 예정

우리대학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발전계획을 마련할 미래기획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미래기획위원회는 지난 2일 상록원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보고회를 가졌다.

오영교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108프로젝트 발표 이후 경영혁신과 학사운영 개혁으로 대학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고 밝히고 "이제는 미래사회에 대한 준비와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미래기획위원회를 발족시키게 된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미래기획위원장을 맡게된 홍순진(삼성전자 고문 · 회계학과 71졸업) 위원장은 "정부와 기업에서 일했던 경험과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동국발전을 위한 초석을 놓는 청사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동국인 모두가 공감할 우리대학의 비전을 만들고 구성원들의 힘을 이끌어내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위원 위촉식이 끝난 후 열린 제 1차 보고회에서는 위원회 설립 배경과 준비과정, 위원회 구성, 목표설정, 기본방향과 사업범위, 추

진일정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활동을 시작한 미래기획위원회는 미래비전, 학문구조, 경영전략의 세 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각의 분과장에는 조종흠(영화영상학), 홍성조(산업시스템공학과) 이영면(경영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미래비전 분과는 미래사회의 성격과 국내외의 교육, 사회환경을 분석해 대학이 준비해야 할 과제와 전략을 마련한다. 학문구조 분과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학문 간 융합과 교육과정 개편 등 연구·교육의 미래전략을 준비한다. 경영전략 분과는 거버넌스와 재정확충의 대안과 방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미래기획위원회는 특히 기획위원을 뽑고 미래지향성을 가진 전임 교원들로 구성해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Vision 2015 · 2020 · 2030 등 장단기적인 대학발전을 목표로 설정하고 각 분과별 연구 및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발전전략에 대한 학내 컨센서스 확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미래기획위원회는 내년 1월까지 각종 활동을 마무리하고 비전 수립 보고서를 제시할 예정이다.

미래기획위원회는 지난 2월 정책조정회의를 거쳐 3월 9일 규정을 마련한 후 홍순진 삼성전자 고문을 위원장으로 임명했으며 기획사무국 구성과 기획위원 인선을 거쳐 이번 1차 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됐다.

미래기획위원회는 총무로 영상센터 신관 217호에 사무국을 마련하고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과 외부자문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형성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차 보고를 한 김윤길 기획사무국장은 "미래기획위원회는 중장기 대학발전전략 수립 뿐만 아니라 미래 전망에 걸맞은 우리대학의 모습과 세계일류대학으로서의 명확한 비전을 마련할 것"이라며 "모든 발전전략 수립에 앞서 학내 구성원들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기획위원회 기획위원 및 자문위원(사무국 · 실무협력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홍순진(삼성전자 고문) ▲미래비전분과=조

종흠(영화영상 · 위원장) 강삼모(경제학과) 양우철(물리학과) 유재웅(국어교육과) 장원희(생명과학) 조동기(사회학) 황순일(불교학부) △경영전략분과=이영면(전략기획본부장 · 위원장) 박재기(행정학) 김승용(경영학과) 송명호(기계로봇에너지) 이계영(컴퓨터멀티미디어학부) 이학노(국제통상학) 정담영(공연예술) 채석래(의학과) 최경규(경영학과) 한광야(건축공학과) △학문구조분과=홍성조(학사지원본부장 · 위원장) 김준(멀티미디어학과) 박진희(교양교육원) 유홍우(철학) 임민중(정보통신공학) 조상식(교육학과) 조준영(물리학과) △실무협력위원=김규환(사업개발본부) 김영훈(학사지원본부) 박서진(경영관리실) 박훈선(전략기획본부) 신하균(국제화추진단) 유광호(전략기획본부) 유권준(동국미디어센터) 조웅신(산학협력단) 권영섭(경주경영관리팀) 이규욱(의료원 변화관리팀) △기획사무국=김윤길(총괄사업팀장 · 기획사무국장) 백승권(전문위원) 박종진(과장)

▶ 관련기사 2면 정용재 기자 wonder@dongguk.edu



세상을 비추는 힘, 세상을 깨우는 이름 만해관에 UI 서치라이트를 설치하고 매일 저녁 8시~10시까지 작동시키고 있다. 김윤수 기자 yshero21@dongguk.edu

## 여대생커리어, 취업지원사업 추가 선정

### '웰빙푸드코디네이터과정' 선정 ... 여성부 2천4백만원 지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여성부 주관 '2009년도 지역 사회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에 추가 선정돼 또 다시 2천 4백만원을 지원 받게 됐다.

지난 3월 선정된 '온라인 쇼핑몰 솔루션 전문가 과정' 사업에 이어 '웰빙 푸드 코디네이터 과정' 사업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 지역 사회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선정으로는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서는 2천 4백 만원을 추가 지원받게 되며, 지원금은 웰빙 푸드 코디네이터 교육 과정에 사용될 계획이다. 강좌 대상자는 우리대학 뿐 아니라 전국 타 대학의 학생들도 가능하다. 우리대학의 경우, 2009학년

## 동국후원업소 캠페인

### 대학 · 지역간 협력 구축

대외협력단이 주변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동국후원업소' 캠페인을 시행한다. '동국후원업소' 캠페인은 학교와 지역주민(상가)간의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대학 문화거리 조성 및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고자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 사업은 학교 발전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후원업소를 모집하고 이에 우리대학은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시설 협력 및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고자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 사업은 학교 발전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후원업소를 모집하고 이에 우리대학은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시설 협력 및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고자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 사업은 학교 발전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후원업소를 모집하고 이에 우리대학은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시설 협력 및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고자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 사업은 학교 발전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후원업소를 모집하고 이에 우리대학은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시설 협력 및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고자 마련됐다.

## 국립대만사범대학 학술교류 협약

### 지난 1일 협약식 ... 오는 9월부터 학생교류 실시



우리대학이 지난 1일 본관 5층 소회의실에서 국립대만사범대학과 학술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학술교류협약식은 오영교 총장, 학사부총장, 대만국립사범대학 귀이시웅 총장과 국제화추진단 단장, 예술대 김대열 교수, 중문과 한용수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한 학술교류협약식에서는 두 총장의 학교소개, 각 학교의 교류협약 관련 의견 교환, 교류협정 서류 교환 순으로 이뤄졌다. 귀이시웅 사범대학 총장은 "국립

## 조선 · 경상대와 교류협정 로스쿨 관련 공동 대응

우리대학이 경상대, 조선대와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등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상호 교류협정을 맺기로 했다. 협정식은 오는 8일 교무회의실에서 열렸다.

3개 대학은 이를 위해 상설기구로 '교류협력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현안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연계교류협력 ▲교육과정 및 방법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대학교별 특성화를 위한 연계교류협력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계교류협력 등이다. 또 ▲공동 프로젝트 설정과 공동 연구 ▲학술연구 컨소시엄 구성 ▲학점교류인정 및 원격화상강의 교류 ▲대학원 연계전공개발 및 대학원생 교류 ▲국제학술세미나 공동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공유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학술교류는 오는 9월부터 실질적인 학생교류가 이뤄질 예정이다.

새 학생증은 다음달 4일부터 중앙도서관 열람실 등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구 학생증은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새 학생증에 부착된 사진을 교체하려면 각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학생서비스팀에 구비된 사진신청서를 작성해 학생서비스팀에 제출해야 한다.

## 중도 · 다항관, UI 기념품 진열장설치

### 대학 이미지 제고 ... 학교 브랜드 홍보 차원

홍보실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지난 31일부터 중앙도서관과 다항관 매장에 UI로고가 새겨진 기념품 진열장을 설치했다. UI로고 기념품 사업은 우리대학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브랜드 관리차원의 홍보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획됐다. 또한 UI로고 새

겨진 스포츠 용품을 착용함으로써 학생간의 동질감을 유발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중앙도서관과 다항관 매장에 전시된 기념 품목은 총 30종이며 90여가지 종류의 기념품을 전시하고 있다. 또한 가격은 최저가 만원 내외에서 최고가 30만원까지 다양하다.

동국인 등산대회와 중간고사로 인해 다음주 신문은 휴간합니다. 1474호는 5월 4일자로 발행되오니 독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지/면/안/내

2 학생대표자회의 개최

3 동국 혁신 아이디어 소개

4 MB정부와 민주주의의 위기-언론정책

5 공대 산학협력세미나

8 동국 아트컴퍼니 김동현 스태프 인터뷰

## 제49주년 4·19혁명 기념 제40회 동국인 등산대회

**1. 일시:** 2009년 4월 10일(금) 09:30~15:00

**2. 장소:** 국립4·19 민주묘지(추모식), 북한산(등산대회)  
\* **집결:** 오전 9시 30분까지 국립4·19 민주묘지 내 다목적 광장  
(지하철 4호선 수유역 5번 출구에서 08시 부터 셔틀버스 운행)

**3. 참가대상:**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 모든 동국가족

**4. 행사권 추첨**  
대동문 입구에서 행사권 배부 및 추첨 (11:30~13:30)

**5. 행사일정**

행사내용	장소	시간	유의사항
4·19혁명 기념 추모식	국립4·19묘지 내 기념탑	추모식 9:40~10:00	09:40분부터 합동 참배
등산대회 출발	국립4·19묘지 내 다목적광장	출발 10:00부터	시간 엄수
중식	대동문	중식 12:00~13:30	자녀친음주절대삼가 쓰레기개인별수거후하산
행운권 추첨	대동문 내 중식장소	추첨 13:30~13:40	대동문입구행운권배부 행운권추첨및당첨자게시
하산	도선사방면	하산 13:40부터	하산길 안전사고 유의

**6. 의과(부)단체팀 신청:** 4.8(수) 까지 명단을 작성하여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

**7. 시상 및 상금**  
가. 학과(부) 단체팀 : 금상 1팀(100만원), 은상 3팀(각 50만원), 동상 5팀(각 30만원).  
나. 행운상 : 30명(각 20만원씩 4·19장학금 지급).  
다. 사진 콘테스트 : 금상 1명(₩300,000), 은상 2명(각 ₩200,000), 동상 3명(각 ₩100,000).  
- 사진 콘테스트 응모자 중 선착순 30명에게 상품권 지급(1만원권)

**8. 협찬 :** 국가보훈처, (주)동의산업, KB국민은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

**9. 문의처 :** 학사지원본부 학생서비스팀(2260-3699)  
\* 행사진행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학사지원본부**

# 총학생회 학생대표자회의 개최

## 총학 총노선 · 사업계획 · 학자요구안 결의, 학교측에 전달

총학생회(이하 총학)가 지난 30일 학생대표자회의를 열고 총학생회의 올 한 해 노선과 1학기 사업계획, 학자요구안 등을 의결했다. 학립관 소강당에서 열린 학생대표자회의는 총원 100명 중 67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중 혹은 학기 초에 시행한 확대총연외, 전체일꾼 수련회 등 기간사업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이후에는 총학 집행부 임원 인준에 대해 의결했다. 이번 41대 총학은 정보통신국, 연대사회국 등을 신설했다. 연대사회국은 각종 지역 사회활동과 제반 정치·사회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학

원자주화투쟁위원회, 아우리증우위원회를 신설했다. 학원자주화투쟁위원회(위원장=이은지·사회4)는 총학 특별기구로 자본과 외세에 의해 왜곡된 학원을 학생 등의 주체가 자주적인 성격을 회복시키기 위해 기획한 의결·집행기구이다. 아우리증우위원회는 종교, 외국인, 성 분야에서 학내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기구이다. 한편 화회소모임위원회는 단과대학별로 비슷한 성격의 화회·소모임을 연합하자는 취지에서 신설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아리)와의 역할이 겹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총학생

회 운영위원회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총학생회 주요사업으로는 정책투표 여론게이지, 도시농업, 체육대회, 학생회 공식 커뮤니티 개설 등이 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총학이 학교측에 요구하는 학자요구안을 의결했다. 학자요구안의 주요내용은 재단 법정부담전임금인용 요구, 각 계열별 실험실습비 공개 의무화, 등록금·학제개편 논의테이블 마련 등이다. 학자요구안은 지난 1일 전체 해오름제 때 신동욱 총학생회장 이 오영교 총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정용재 기자 wonder@dongguk.edu



전체 해오름제 행사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에서 한 주 동안 해오름제를 진행했다. 4월 1일 총학생회에서는 전체 해오름제 행사를 가지고, 총장에게 학자요구안을 제출했다. 김윤수 기자 yshero21@dongguk.edu

### 4·19혁명 기념 등산대회 오는 10일 개최 행운권 추첨 행사, 사진 콘테스트 신설

49주년 4·19혁명을 기념하는 제40회 동국인 등산대회가 오는 10일 국립 4·19민주묘지와 북한산에서 열린다. 등산대회의 참가대상은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 모든 동국가족이다. 등산대회는 10시부터 시작되며 학과(부) 단체 팀은 금상 1팀에 100만원, 은상 3팀(각 50만원), 동상 5

팀(각 3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학과(부) 단체 팀 신청은 8일(수)까지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대회에는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행운권 추첨 행사와 사진콘테스트를 새롭게 마련했다. 행운권 추첨 행사는 대동문에서 열리며 추첨된 30명에게는 2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 매뉴얼 런던 교수 경영대 초청으로 특강

뉴욕주립대학 스토니부룩 캠퍼스 매뉴얼 런던 교수가 'Leading Groups'라는 주제로 오는 8일 문화관 제 3세미나실에서 초청 특강을 한다. 런던 교수는 현재 뉴욕주립대 스토니부룩 캠퍼스 경영대학의 부학장이며 joint Degree MBA프로그램의 구제화에 협력중이다.

### 동약로에서

#### 슬픈 현실

이신혜 기자  
leeshin@dongguk.edu



“2007년도 학제개편과 입학조정에 반대 투쟁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다시 학생들이 모였지만, 학교 측의 폐교 통보 후 최대의 침체기를 맞고 있다” 독어문화학과 학생회장 장민환(독문4) 군은 독어문화학과와 입학조정에 반대 투쟁을 주도했다. 지난 3월 6일 학교 측은 ‘2010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는 독어문화학과와 입학정원은 학교 차원에서 검토하여 조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문과대에 전달했다. 지난해 학과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학정원 관리시스템이 처음으로 가동돼 학과별 순위가 발표되고, 하위 15% 평가를 받은 학과들 중 독어문화학과(이하 독문과) 전공이 처음으로 사실상 폐교 위기를 맞은 것이다. 이에 대해 문과대 교수회측은 지난 3월 25일 학교의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교 당국은 2007년 학과편제 및 정원 조정안을 추진해 독문과의 인원을 감축시킨 바 있다. 이후 2008년 정원대비 재학율, 취업 및 진학률, 입학 성적 등 평가 지표에 근거해 인원을 감축해 나가겠다는 ‘입학정원관리시스템’을 발표해 지속적으로 하위 평가를 받은 학과에 대한 정원 감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학교의 정책은 ‘사회적 수요가 적은 비인기 학과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기회비용의 지출이 많아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독문과 학생들은 “문제의 원인을 학교 구성원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또 인문학을 홀대하는 학교

측에 서운함을 넘어 절망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그러다보니, 독문과에 입학해 학교를 다니다 다른 과로 전과하는 학생들도 급증했다. 실제 입학정원조정안이 발표된 후 전과한 학생은 모두 22명으로 예년의 수치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학교 운영이 불투명해지면 서 벌어진 일이다. 물론 학교당국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학과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적은 재학생 수를 가진 학과를 언제까지나 유지할 수는 없다. 경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것은 정원이 많은 학과의 자원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지만 말이다. 재정적인 문제로 경영적인 이유로 순수학문이 설자리를 잃는 일은 매우 아프고 슬프기만 하다.

### 사범대, 사제동행 프로그램 서울시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 선정

우리 대학 사범대학이 서울시가 지원하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시범 대학’에 선정됐다. ‘건강한 학교 만들기’는 현재 학교 자체 내에 공교육이 약화되고 사교육이 만연한 상황에서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다. 현재 우리대학을 포함하여 서울 지역 8개 대학이 선정되어 8개 분

야에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우리 대학은 사제동행(사범동행) 멘토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제동행 멘토 프로그램은 우리 대학 사범대학생들이 중구 지역의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수준별 보충학습과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 이기동 교수, 수당상 수상 인문사회부문 수상

재단법인 수당재단이 제18회 수당상 인문사회부문 수상자로 이기동 석좌교수(66)를 선정했다. 수당상은 삼양그룹 창업주인 수당(秀堂) 김연수 선생의 인재육성 정신을 기리기 위해 그의 아호를 따 1973년 제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7일 중구 태평로 프라자호텔에서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1억 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 홍순직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 학내외 컨센서스 이뤄내는 데 중점

### 정부·기업 혁신 이뤄낸 경험 바탕, 모교발전 엔진 만들어 낼 것



홍순직 위원장은 미래기획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배경에 대해 “2007년 오영교 총장이 구상한 108프로젝트와 깊은 관계가 있다”라며 “108프로젝트는 혁신·개혁 프로젝트였지만 장기적 마스터 플랜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오영교 총장이 지난해부터 장기적 마스터 플랜을 구상할 테스크 포스 구성을 지시하면서 미래기획위원회의 구성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 뜻을 이어 학교를 운영한다. 사실 그동안의 갈등은 발전에 대한 비전이나 전략의 부재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종단이 대학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생각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허심탄회하게 종단과 재단의 관계자들과 한국불교가 발전할 수 있는 길, 동국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의 공통분모를 찾아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 역시 결론은 컨센서스였다. 설득과 참여, 그리고 공감으로 이뤄지는 개혁과 비전의 방향은 컨센서스로 모아졌다.

우리대학의 장단기 발전 전략을 논의하게 될 미래기획위원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영교 총장의 부임이후 우리대학은 성과평가 시스템 도입, 강의평가 공개 등 여러 가지 대학개혁에 박차를 가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경영혁신에 활력을 불어넣을 장기간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안팎의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이같은 지적에 대에 오영교 총장을 비롯한 학교당국자들이 지난해 말부터 장기적 대학발전 마스터 플랜을 구상할 미래기획위원회의 구성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대학을 세계 일류 대학으로 이끌 비전과 계획을 수립하게 될 미래기획위원회 홍순직(회계71졸) 위원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홍순직 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학내외의 컨센서스를 강조했다. 교수와 직원, 재단, 종단의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자발적으로 나설 때야 마스터 플랜이 비로소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지론을 가진 듯 했다.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삼성이 재단을 인수했을 때 내외의 반발이 매우 컸다. 이들이 결국 한 마음으로 뭉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설득과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의 제시였다.” 홍순직 위원장은 이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며 “동국인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홍 위원장이 삼성에서 근무하면서 터득한 혁신의 노하우다.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고, 모든 구성원이 스스로 감동 받고 실천하는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도부는 구성원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우리대학의 혁신도 모든 구성원이 합의할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하고, 그들에게 최대한의 자율성을 제공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기획위원회는 미래기획, 학문구조, 경영전략 등 총 세 개의 분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분과는 이름에 걸맞게 경영, 학문 등의 대학행진 분야에서 발전전략을 세운다. 홍순직 위원장은 “어느 한 분야에만 치우치지 않고 세 개의 분과가 균형을 이루어야 균형적인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 미래기획위원회의 기획위원회에는 젊은 교수들이 대거 위촉된 이유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대학을 이끌어 나갈 젊은 교수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자칫 발전전략이 급진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장에는 중진 교수들을 위촉했다. 홍순직 위원장이 이끌 미래기획위원회는 학내외의 다양한 자료를 통해 우리대학의 현실과 한계를 파악하고 각 분과에서 연구, 토론회 등을 통해 내년 1월까지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래기획위원회에서 나온 혁신적인 정책은 적용 가능할 경우 즉시 학교 행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103년간 무수한 영광과 고난을 겪어온 우리대학이 미래기획위원회를 통해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할지 기대해본다. 정용재 기자 wonder@dongguk.edu

##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기간 : 2009년 3월 24일 ~ 3월 30일

#### 단위기금

서리별원록(동문, 6만원) 석정원록(동문, 5만원) 행정대학원(대학원/행정, 800만원) 현대자동차 장학점(기업/재단, 5만원)

#### 장학기금

국민은행(기업/재단, 500만원) 김여진(동문, 1만원) 김영진(대학원/경영, 400만원) 김용주(동문, 400만원) 박지현(일반/기타, 5만원) 생활협동조합(기업/재단, 422만4000원) 신철스님(스님, 100만원) 여우의(대학원/불교, 10만원) 옥태일(동문, 1만원) 이경(동문, 3만원) 조현하(동문, 1만원) 채윤미(일반/기타, 1만원) 최보영(동문, 1만원) 학명스님(스님, 100만원)

#### 동국대생기금

박군서(서울/직원, 6만8410원)

#### 발전기금

동화메탈(기업/재단, 100만원) 오현욱(동문, 100만원) 청안사(불교신도, 2만원) 최용환(동문, 100만원)

#### 특정목적기금

(주)고리(기업/재단, 100만원) 김상필(경주병원/직원, 2만원) 김해정(동문, 3만원) 박문고(동문, 2만원) 유기환(동문, 1000만원) 이규욱(의료원/직원, 2만원) 이남순(일반/기타, 1만원) 이영호(대학원/경영, 100만원) 전영도(경주병원/직원, 1만5000원) 정각원(불교사찰, 100만4450원) 정승채(동문, 20만원) 최고위(안정책과정(동문, 2000만원) 혜선스님(스님, 100만원)

#### 일선불교병원발전기금

이규욱(의료원/직원, 1만원) 이철은(동문, 2만원) 임선화(불교신도, 2000원) 홍순아(불교신도, 1만원)

### 만원을 세상에서 가장 값지게 쓰는 방법

만원을 사용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영화 한편, 테이크아웃 커피2잔, 음악CD 1장.. 그러나 만원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습니다. 힘든 학우의 등록금이 되기도 하고, 오래된 학교환경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만원이 많은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동국대학교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만원의 행복이란?**  
1구좌당 1만원의 금액으로 동국대학교에 힘을 보태주실 수 있습니다.  
(구좌수에 관계없이 추가하실 수 있으며, 최소 1만원씩 참여시, 연간 12만원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 : 우편, 전화 및 팩스로 신청가능합니다.  
(전화번호 02-2260-3300, 3794~5, 8992~3)

**※ 동국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ilove.dongguk.edu/)에서 2009년 3월 10일부터 참여가능합니다**

### 동국대학교 대외협력단

###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기간 : 2009년 3월 24일 ~ 3월 30일

**단위기금**  
서리별원록(동문, 6만원) 석정원록(동문, 5만원) 행정대학원(대학원/행정, 800만원) 현대자동차 장학점(기업/재단, 5만원)

**장학기금**  
국민은행(기업/재단, 500만원) 김여진(동문, 1만원) 김영진(대학원/경영, 400만원) 김용주(동문, 400만원) 박지현(일반/기타, 5만원) 생활협동조합(기업/재단, 422만4000원) 신철스님(스님, 100만원) 여우의(대학원/불교, 10만원) 옥태일(동문, 1만원) 이경(동문, 3만원) 조현하(동문, 1만원) 채윤미(일반/기타, 1만원) 최보영(동문, 1만원) 학명스님(스님, 100만원)

**동국대생기금**  
박군서(서울/직원, 6만8410원)

**발전기금**  
동화메탈(기업/재단, 100만원) 오현욱(동문, 100만원) 청안사(불교신도, 2만원) 최용환(동문, 100만원)

**특정목적기금**  
(주)고리(기업/재단, 100만원) 김상필(경주병원/직원, 2만원) 김해정(동문, 3만원) 박문고(동문, 2만원) 유기환(동문, 1000만원) 이규욱(의료원/직원, 2만원) 이남순(일반/기타, 1만원) 이영호(대학원/경영, 100만원) 전영도(경주병원/직원, 1만5000원) 정각원(불교사찰, 100만4450원) 정승채(동문, 20만원) 최고위(안정책과정(동문, 2000만원) 혜선스님(스님, 100만원)

**일선불교병원발전기금**  
이규욱(의료원/직원, 1만원) 이철은(동문, 2만원) 임선화(불교신도, 2000원) 홍순아(불교신도, 1만원)

### 동국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주요아이디어 소개

# 동국 발전 공감 속, 숨은 아이디어 백출



지난 18일 열린 '동국을 위한 혁신 아이디어 공모' 시상식

## 동국 문화 캠퍼스 조성

블로그중립대학 특성화 전략 공략! 학내 블로그 시설풍을 적극 활용한 문화캠퍼스 구축



▲ 서보국(일본대학원 윤리문화학과) 서보국 군의 아이디어는 학내 블로그 관련 시설물을 활용, 학교 구성원들은 물론 외부인들에게 문화캠퍼스로서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기획했다.

아이디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캠퍼스 주변 호텔에 투숙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지로서의 자리매김, 지역 거주민들과 일반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친숙한 캠퍼스의 조성이다.

외국인들 대상의 관광지 공간으로서 그는 문화캠퍼스 안내책자의 정기적 발행을 제안한다.

이는 정각원에서 진행되는 참선 프로그램, 박물관 전시회, 이해당 예술극장 공연 일정 등을 잡지 형태로 엮어 캠퍼스 인근 호텔에 배포 및 홍보하는 방식이다.

뿐만 아니라 관광 목적이 아닌 비즈니스 목적을 위해 내한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본관 회의실 및 컨퍼런스 홀, 세미나 실 등과 같은 학내 시설물의 대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대학의 수익 창출 및 대외 이미지 홍보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역 거주민 및 일반 관광객이 애용하는 캠퍼스 조성의 방안으로는 오픈캠퍼스의 계획이 있다. 남산 등산로 코스와 우

리대학 캠퍼스 투어를 연계시켜 일반관객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남산을 등산하거나 산책하는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팸정도의 의미, 보현보살 코끼리상에 얽힌 재미있는 실화 안내문을 설치해 주민들의 관심을 유발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본 아이디어는 문화화 관련 연계 전공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캠퍼스 조성에 학생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불어 대내·외적으로 동국대학교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 맞춤형 강의 찾기

개설 강좌에 대한 정보 및 강의방식 '미리보기' 서비스 제안 아이디어

▲ 오도현(법학과) 강의를 미리 들어보고 수강신청을 해 보면 어떨까? 현재 학생들은 단순히 교수의 인지도, 강의계획서, 청강 경험이 있는 다른 학생의 평가 등에 의존해 수강신청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오도현 군은 학기 수강신청 일정 기간에 앞서 해당 강의의 개괄적 안내 영상 배포를 제안하고 있다. 과목에 대한 함축적 정보 및 강의 방식을 수강신청 전에 학생들에게 선보임에 따라 강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수강신청 전 업로드된 미리보기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만족도 높은 선택을 하게 되고 이는 책임감있는 결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동시에 해당 과목의 안내를 해야 하는 교수들은 안내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를 고민하게 돼 우리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 각양각색 콘텐츠 개발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콘텐츠 개발 통한 '동국의 Identity' 확립



▲ 윤슬기(기계공학과)

윤슬기 군의 아이디어는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을 통해 '동국' 자체를 브랜드화 시키고, 학교와 학생간의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윤슬기 군이 제안하는 콘텐츠 개발 사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온라인 콘텐츠의 개발은 동국대 공식 블로그 및 미니홈피의 개설이다. 블로그 및 미니홈피와 같은 온라인 콘텐츠의 이용이 많은 학생들에게는, 공식 블로그 및 미니홈피의 개설이 학교 홈페이지보다 학생들의 접근을 훨씬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오프라인 콘텐츠 개발의 사업으로는 공식 학교 점퍼, 펜, 마우스, 파일 등의 실용적 제품을 제작해 판매하는 '동국대학교 Identity 전용 매장'의 설립을 제안한다.

단순히 동국대 마크를 새기는데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구매 욕구를 고려하여 대내적으로도 충분한 실용적 디자인을 생산해내는 것이 본 아이디어의 관건이다.

일단 대·외적으로 성공적인 디자인이 제작되지만 하면, 학생들의 수요는 물론 대내적으로는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애교심 고취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누리꾼들에게 우리대학을 많이 노출시켜 홍보할 수 있고, 학교와 학생간의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대화의 장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출입문에 따뜻함을 입히다

출입문 손잡이에 '가족제치 부착' 따뜻한 겨울나기 제안

▲ 이재찬(경영학과)

이재찬 군의 아이디어가 노리는 효과는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소소한 감동'이다.

이재찬 군이 생각하는 대학이라는 공간은 하나의 서비스 기관과도 같다. 때문에 이 군은 대학이라는 공간은 이용하는 모든 이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이런 철학 덕택에 나오게 된 기발한 아이디어는 바로 겨울철, 출입문 손잡이에 가죽 패치를 부착하는 것이다.

겨울철 가벼운 접촉에도 발생하는 정전기 및 쇠가 주는 차가운 느낌을 사람의 불쾌지수를 높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가죽 패치를 손잡이에 부착해 학생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딱딱이 형태의 탈부착으로 제작해 장기간 사용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비용 절감면에 있어서도 이득을 볼 수 있는 아이디어인 셈이다.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이기 는 하지만 작은 부분에도 신경 쓰는 섬세함은 학내 구성원들은 물론 외부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줘 우리대학의 이미지를 드높일 수 있다.

## 그 밖에 돋보였던 제안들

수도권 지역 통학버스 템플 스테이 의무 시행 수강신청 시 대기자 등록 서비스

▲ 수도권 지역 통학버스 및 장애우용 셔틀버스 운행 : 학생들이 가장 환호할만한, 편의성 및 접근성의 관점에서 좋은 아이디어이기 는 하지만, 차량운행을 위해서는 학교 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아이디어다.

▲ 템플 스테이 의무 시행 : 필수이수과목인 '자아와 명상'의 대체과목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학교의 긍정적인 입장이 엿보였던 아이디어. 학교측은 본 아이디어에 대해 자아와 명상과 템플 스테이 중 학생들이 원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보겠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 수강신청 시 대기자 등록 서비스 : 들고자 하는 강좌의 인원이 찼을 경우, 대기자 등록을 하여 등록순으로 강의를 신청 가능하게 하는 아이디어. 학교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관련부서와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정리= 김활란 기자 lan@dongguk.edu

## 아이디어도 내고 받은 상금 다시 기부한 이관용 씨 "기부하고픈 생각들게 만드는 것이 핵심"



동국 혁신 아이디어 공모에서 수상중인 이관용 씨

"최소합니다만, 제가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다 인터뷰까지는 너무 과한 것 같아서요"

지난 18일, '동국을 위한 혁신 아이디어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이관용(일본대학원 사회학과)씨는 여러 번의 인터뷰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망설이던 것 같았다. 학교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가 좋아 응모했을 뿐이라며, 너무 과한 평가를 받는 것에 속스러워 했다.

이관용 씨는 지난 공모전에 '소액기부 참여 캠페인'이라는 주제의 아이디어를 냈다. 이 아이디어는 우수상에 채택돼 부상으로 10만원을 받았다. 이에 이관용 씨는 받은 부상을 학교에 기부했다.

"제 아이디어가 정책 반영에 활용된다면 선뜻 내지 못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어요"라고 말하는 이관용 씨. 그가 이번 공모전에 제출했던 아이디어는 간략히 말해 '학생들의 소액기부 참여 캠페인'이다. 본 캠페인의 가장 핵심적 내용은 각 단과대별 코끼리 저금통을 설치해 소액이지만 학생들이 직접 기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교 측의 기부 예우 프로그램으로서 기부 내용을 소개하는 코끼리 매거진의 발행, 단과대 로비 TV 설치를 통한 모금 현황의 실시간 공개 등이다. 뿐만 아니라 기부방법을 현금이 아닌 ARS 및 계좌이체 등으로 확대하고, 학생들이 기부하고픈 테마를 스스로 정해 해당 사업에 직접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부 테마'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이관용 씨는 "기부자에게는 기부한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때문에 기부자들에게 성과를 가지적으로 드러내 뿌듯함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라고 말한다. 생활과 맞닿아 있는 것이 기부. 기부하는 자나 기부 받는 자나 모두 주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부에 대해 우선 친근한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이 그가 생각하는 기부의 첫 걸음이다.

친숙한 이미지의 조성 뿐 아니라 '기부하고 싶은 학교'가 돼야 한다고 말하는 이 씨. "이번 공모전에 제출한 168건의 아이디어에 학교에서는 일일이 코멘트를 달아주시더라고요"이러 이관용 씨는 "이러한 학교 행정 서비스도 성의를 보일 때 기부하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한다.

"변화하려는 과정 속에서는 곳곳에 마찰과 소음이 있기 마련이죠" 지금처럼 개개인 아이디어 하나하나를 소중히 생각하고 소통하는 대화의 장이 항상 개방돼 있다는 점은 중요한 문제다. 이관용 씨는 "단순히 학교가 학생들을 안고 가지는 식이 아니라, 직접 대화하며 소음을 줄여가는 아래로부터의 소통이 진짜 중요하다"고 말한다.

과거 우리대학은 3대 사학이라 불리곤 했다.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애교심이 넘쳐나고, 이런 애교심은 곧 '긍정적 구권행동'을 불러일으켜 대내·외적으로 귀감이 되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다.

"제가 사랑의 열매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기부에 대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소액이라 해도 자기 안의 착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건강한 일인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아직 사회적으로 진솔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기부라는 것이 오히려 익숙하지 않음이 당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단하지 않던 푼돈이 모이고 쌓이면 언젠가 그랬냐는 듯 태산이 된다. 작년 우리대학은 발전기금 모금액이 100억원을 넘어 섰다. 올해 다시 2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학교와 학생이 만들어 낸 200억원의 합작품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김활란 기자 lan@dongguk.edu

# Dongguk Clean Campus Campaign 안내

## 1. 추진목적

운영지원본부 총괄지원팀에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교내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2009학년도 새학기를 맞아 Dongguk Clean Campus Campaign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Dongguk Clean Campus Campaign은 "무분별한 홍보용 전단지 살포 방지", "음식물(잔반)의 과속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그리고 "음식물(잔반)의 방치로 인한 비 위생적인 환경 방지"등을 중점 사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학교의 일방적인 통제가 아닌 학교와 학교 주변 음식점이 서로 협의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운영지원본부 총괄지원팀에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캠퍼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본 캠페인은 내부 구성원의 협조가 없이는 성공할 수도 지속될 수도 없습니다.

성공적인 Dongguk Clean Campus Campaign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2. 추진내용(업체순서 사항)

- 가. 음식물 및 그릇 수거 철저(수거용 봉투 배포)
나. 음식물 배달 오토바이 출입시 과속 절대 금지
다. 음식물 배달시 각 업체별 조기 착용

\* 동국대학교에서 배포하는 조끼를 입은 음식 배달원만 학교 출입 가능
라. 야의 각 휴게소에 학교 등록업체의 전화번호 및 메뉴가 포함된 책자 비치

=> 삼진 아젯제 시행: 위 사항에 대해 위반사항 적발시 1회 및 2회는 경고, 3회 경고시 학교에서 배포한 조끼 회수 및 학교 출입 통제

## 3. 협조 요청사항

- 가. 음식물은 학교에 등록된 업체(점부 1 참조)에서 주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야의 휴게소에 업체현황(메뉴 포함)을 책자로 만들어 비치할 예정입니다.
(2) 우수 협력 업체 현황을 홈페이지에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나. 남은 음식물과 그릇은 반드시 업체에서 제공하는 수거용 봉투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본부

### < Dongguk Clean Campus Campaign 참여 업체 >

분식	김기네	2269 - 7011	강서	2266 - 0466
	미디래	2268 - 3617	만리장성	2266 - 1737
	식사나라	2263 - 9986	필동반점	2272 - 2782
	나래종합분식	2263 - 3759	유성각	2238 - 4777
	코끼리종합분식	2268 - 7712	도화원	2231 - 6030
	진이네 떡볶이	2275 - 8078	천미식당	2232 - 6771
	선희네 떡볶이	2298 - 7173	화양식당	2279 - 4819
일식	허수아비(돈까스 전문점)	2285 - 5515	성신제피자	2277 - 0015
	오벤도야	2272 - 8253	피자에땅	2235 - 5678
	덕화장	2267 - 1888	피자켓	2233 - 9138
	사해루	2273 - 4372	파파존스피자	2233 - 3906
중식	동국만점	2252 - 8800	미스터피자	2254 - 2050
	천미향	2279 - 9509	오븐구이 본스치킨	2272 - 9282
	아리산	2275 - 3233	돌돌치킨	2263 - 1400

위 업체는 Dongguk Clean Campus Campaign에 적극 참여하는 업체입니다. 해당업체를 통해 음식물을 배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후 업체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수거 통 또는 봉투에 반드시 그릇 및 음식물 잔반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 Dongguk Clean Campus Campaign은? >

학교와 음식점이 협의하여 교내 "홍보용 전단지 살포 방지", "오토바이의 과속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음식물(잔반)의 방치로 인한 비 위생적인 환경 방지"를 통해 교내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캠페인입니다.



공학교육혁신센터 <산업체에서 원하는 인재상> 주제로 2일 세미나

“영어보다 전공지식 풍부한 인재 원한다”

대학에는 학제간 융합교육·전공심화교육 필요성 주문

“신입 사원들을 뽑아 놓고 가만 보면 4년 간 영어공부만 한 것 같다”

최근 대학교육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이 언론을 통해 잇달아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가 실제 산업체를 운영하는 인사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었다. 대학 교육과 기업들이 바라는 교육 간의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이 눈길을 끌고 있다.

‘산업체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주제로 한 세미나는 지난 2일 우리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 주최로 소피텔 엠베서더에서 열렸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일항공기계의 정홍기 대표이사는 “대학생들을 뽑아 보면 어쩔 땐 4년 내내 영어공부만 한 것 같은 느낌까지 든다”며 “전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바로 현장에 투입하기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영어는 어떻게 손질 할지라도 통할 수 있지만 전공 지식이 없이는 일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다. 더불어 전문 지식 뿐만 아니라 사업 전체를 보는 경영 마인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호 산업의 장해남 전무이사는 “사원을 처음에 뽑아 보면 실력은 엇비슷하지만 복사 하나를 시키더라도 복사 서류를 보며 실무를 익히는 사람과 그저 복사만 하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차이가 난다. 잠재력,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 남들과의 관계에서 공감력이 뛰어나고 봉사 정신이 투철한 사람, 조직을 차분히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를 뽑고 싶다”고 밝혔다.

이 날 세미나엔 학교와 기업의 실질적인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위한 패널 토론도 이뤄졌다. 토론은 우리대학 공과대학 장 이의수 교수 사회로 진행됐고 우리대학 측에선 황승훈, 이재섭 교수가 참여했다. 산업체 측에선 이규훈 스타트 비전택 대표이사, 김승호 ‘홍진C&Tech’ 대표이사, 이성진 에이스 지오 대표이사가 참여했다.

김승호 대표이사는 “공학 인재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대학도 하나의 방향을 잡아 그곳을 집중 공략하면 그 분야에선 산업체에 확실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과대학생도 기계적인 일뿐만 아니라 영업, 기획에도 시야를 넓혀야한다”고 말했다.

이규훈 대표이사는 “실제로 현장에선 창의적인 공학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영업, 기술 등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도 필요하다”며 다양한 학문을 강조했다. 이성진 대표이사는 토목은 알고 화학 공학은 모르는 직원을 예로 들며 학제간 융합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이규훈 대표이사는 “학과의 특성에 맞는 로드맵, 이수 체계를 갖추고 이 학과의 목표가 무엇이고, 실제 산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관되고 적용되는지 충분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대학교육에 바라는 점을 밝혔다.

이성진 대표이사는 “학문의 전체적인



▲ 이재섭 건축 공학과 교수

맛을 볼 수 있는 강좌 등을 개설해 학생들에게 자신이 전공하는 학문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 대학 황승훈 교수는 우리는 기업이 바라는 교과과정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운을 댄 뒤 “실질적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기업과 대학이 의사소통이 필요하니 고민이 있을 때 대담할 수 있게 의견 교환이 자유로울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재섭 교수는 “기업들이 전공에 대한 부분을 많이 요구하는데 그런 기업들의 신입 모집 공고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 일단 토의 접수 같은 스펙을 일정 수준 요구 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1차 서류심사부터 붙는 것이 우선



▲ 이규훈 스타트 비전택 대표이사

이다. 기업들이 전공에 대한 지식이 있는 학생들을 뽑으려면 전공 부분에 대한 것도 평가에 넣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더불어 업체들의 협력 없이는 설계 교육도 단순한 그림으로 끝나 버리는 경우가 많으며 기업들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 날 세미나에선 각 기업들의 다양한 인재상이 이야기 됐다. 그 중에서도 이성진 대표 이사는 기업들이 보는 동국대생의 이미지를 “묵묵하고 푹심 있게 나가는 인재”로 기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대학이 한 분야에 특화된 인재를 배출해 나간다면 기업들에게 우리 대학의 확실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blueeagle@dongguk.edu

<4> 쥐

권보드래 교수의

시련을 극복하는 책임기



아우슈비츠, 그리고 살아남기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내가 있다. 운이 좋았다기보다 수완이 좋았던 사내. 그는 어디서나 거래를 맺고, 자기편을 만들었으며, 그러면서도 누구도 믿지 않았기에 살아남았다.

유대인 탄압이 극단으로 치달던 2차 대전 막바지, 그는 배신당하고 밀고당할 끝에 아우슈비츠까지 밀려오지만, 빵과 소시지를 거래하는가 하면 어학과 목공과 무두질 등 은갖 능력을 익히고 동원해 살아남는 데 성공한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러나 삶은 계속되고 악몽 또한 계속된다. 사업가로 성공한 후 미국에 정착했으나, 그는, 그리고 역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그의 아내는 평생토록 잠자리에서 비명을 질러댄다. 아우아우아우아우.



쥐  
지은이 : 아트 슈피겔만, 권희섭 역  
펴낸곳 : 이름 드리미디어

비트라니, 이 역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혹은 아우슈비츠가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러나 삶은 계속되고 악몽 또한 계속된다. 사업가로 성공한 후 미국에 정착했으나, 그는 평생토록 잠자리에서 비명을 질러댄다. 아우아우아우아우.

감에 기진맥진해 있을 때 아버지는 살아남기 위해 빵조각을 모으고 더 잘 살아남기 위해 무두질을 익힌다.

아버지의 생존욕망은 거의 무뎠다. 아내가 남아 있긴 했으나, 아내가 없다고 이 절친 사내가 삶을 포기했으리라고 믿지 않는다. 그는 아우슈비츠 이전부터 그랬고 아우슈비츠 이후에도 여전히 그랬다.

‘쥐’를 읽고 나서 아우슈비츠가 더 공포스럽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우슈비츠가 때로 그 잡초 같은 사내마져 압도해 버렸기 때문이다. ‘쥐’를 읽고 나서 아버지에게 혐오와 경탄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목적 없으며 그토록 확고하고 강렬했던 그의 생존욕망 때문이다.

지금은 아우슈비츠의 시절이 아니지만, 사는 게 언제라고 특별히 쉬울 리 없다. 비 교할 수 없는 저마다의 무게를 지고 허허거릴 때, 가끔은 생존의 욕망 자체가 그리워 지기도 한다. 무조건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은 어떤 부도덕이나 불의와도 손잡을 수 있기에 자못 공포스러운 것이나, 한편 시절의 압력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그 기백은 유용할 것이다. “살아라!”라는 절대 명제를 어떻게 자기화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미야자키 하야오도 말했거니와—아 잘, 그리고 보니 ‘쥐’도 만화다. 가끔 ‘그래픽 노블’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이영호 기자 blueeagle@dongguk.edu

최응천 교수, 중국서 통일신라시대 불상 발견

통일신라시대 신라와 중국의 문화 교류 재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



▲ 최응천 교수가 닝보시 박물관에서 발견한 불상, 작은 사진은 불상이 발견됐던 천봉탑

우리대학 박물관장 최응천(미술사학) 교수가 중국 닝보시 박물관에서 통일 신라 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을 찾아냈다. 이는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교류에서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기도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최 교수는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중세시대 한·중·일 금속공예 교류’를 연구하기 위해 결성한 한·중·일 조사단에 참여했다. 중국 저장성 일대에서 조사를 벌이는 도중 닝보시 박물관 상설 전시품에서 통일신라시대 불상 1기를 발견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통일 신라 시대의 불상이 중국 지역에서 발견된 것은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교류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활동이 많았던 사실은 문헌으로도 많이 나와 있었지만 통일신라 유물이 중국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불상은 1982년 당시 중국 저장성의 닝보시 중앙에 있는 천봉탑 지하실에서 출토되었다. 처음에 이 불상이 발견됐을 때는 전면에 푸른 녹이 덮혀 불상의 원형을 보기 어려웠지만 박물관 전시를 위해 새로이 보존처리 되면서 원래 불상의 면모와 형태가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이 불상의 가치는 박물관 측에서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이름은 ‘금을 입힌 청동 아미타 불상’, 연대는 중국 남·송대 불상으로 기록돼 있었다. 그러던 중 최응천 교수가 이 불상을 발견한 것이다.

불상이 출토 됐던 천봉탑이 있던 닝보시는 신라시대와 고려시대 때 사신들이 중국에 왕래하기 위해 자주 들렀던 곳이었다. 때문에 당시 닝보시는 고려와 통일신라의 중국 교류 거점으로써 우리나라와 중국의 문화 교류가 매우 활발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최응천 교수는 “처음 이 불상을 봤을

2008학년도 중앙도서관 총장서 및 이용통계 현황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에서는 동국대학교 대학원장 11장 56조(도서관 현황)에 의거하여 총장서 및 이용통계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통계조사기간: 2008. 3. 1 ~ 2009. 2. 28

2. 통계내용

가. 2008학년도 총장서 현황

Table showing book statistics by category (Domestic, Foreign, etc.) and year (2008 vs 2007).

\* 2007학년도 대비 단행본 장서수 37,559책 증가 (2008학년도 18,149책 제작 처리로 인한 차감 수치임)

나. 2008학년도 이용통계 현황 (대출현황 및 출입현황)

1) 대출현황

Table showing loan statistics by user type (Students, Faculty, etc.) and year.

2) 출입현황

Table showing entry/exit statistics for the library by year.

다. 2008학년도 단과대학별 대출통계

Large table showing loan statistics by department for 2008 and 2007.

\* 2008학년도 총 개관일수 317일

4월 중앙도서관 영화상영회 4월 프로그램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도서관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멀티미디어실 영화상영회를 개최 하오니 동국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1. 기간: 2009.04.06 ~ 24
2. 일시: 월 ~ 금요일, 14:00~
3. 장소: 중앙도서관 멀티미디어실 A/V실
4. 상영영화: 제8요일 등 15편

Table listing movie titles, dates, countries, and durations for the film festival.

5. 관람방법: 직접방문, 안내자료 수령 후 관람(무료)
6. 문의: 중앙도서관 멀티미디어실(02-2260-3452)

\* 1. 영화 소개 자료 및 음모수 제공
2. 상영영화는 멀티미디어실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달하나천장에

아웃 라이어 되기

화학 실험시간, 나는 화학 반응을 확인 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강한 황산 용액을 시험관에 넣고 약간 데우려고 가열하던 중 시간이 좀 지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벽 소리와 함께 황산 용액이 시험관에서 총알처럼 날아가 옆 테이블에서 실험하던 급우의 손등에 붙는다. 비명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난다. 눈에라도 붙었다면 어찌할 뻔 했나? 아찔한 사고였다. 화학 선생님과 함께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시도한다. 이것은 본인이 겪은 실화를 토대로 화학 교육용 게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써본 것이다.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게임으로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다. 교육훈련용 게임에서는 실수를 해도 인명이나 재산상의 손해나 무리가 없다.

게임 개발 단순치 않아

이 게임은 단순해 보여도 학습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규칙, 가상 캐릭터의 지능과 대화 능

력 그리고 애니메이션, 가상 환경 등을 이용해 개발할 수 있다. 게임은, 문학적 창의력에 기반한 기획, 디자인과 음악 등의 예술성, 과학 이론과 공학 기술, 업무 지식 등을 응용하여 개발해야 하는 복합적인 작품이다. 게임 기획에서부터 이론과 기술 개발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매우 많은 분야이다. 그래서, 게임을 개발하는 일은, 게임할 때 느끼는 재미만큼 큰 노력과 수고를 수반한다.

게임의 가능성

인류 문명 태동과 함께 할 정도로 길다는 게임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게임이 있다. 그중 컴퓨터 게임은, 게임다운 게임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적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게 되면서 근래 사람에게 새롭게 다가온 존재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은 오락성이 주요 속성으로 부정적인 면이 각인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다.

동문칼럼

욕망 관리법

최근 20년을 넘게 피우던 담배를 끊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내 안에 피어오르는 니코틴에 대한 욕구를 아직은 잔잔히 살고 있는 중이다.

욕망은 항상 단순하고 이유가 없다. 이 사소하고 단순한 욕구는 술을 마실 때마다 혼자 차를 운전할 때, 그리고 평상시보다 조금이라도 능동 진하게 머리를 쓸 일이 있을 때마다 스물스물 그 집요한 활동을 시작하지만, 더도 덜도 아닌 딱 5분만 참고 넘어가면 말끔히 썩 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5분 동안의 긴장된 관찰 기간을 고통스럽게 감내하고 나면, 수십 번 갈망질 팽 하며 겪어냈던 그 팽팽하게 가슴 짓누르던 5분의 무게가 물방울처럼, 그리고 신기루처럼 온데간데 없어진다.

요즘 두 가지 리스트가 사회다중층이랄 수 있는 정관계와 언론계, 법조계 등의 구체적인 사람들과 함께 봄바람을 타고 돌아다니고 있다. 하나는 물욕리스트고 하나는 성욕리스트라는 우스개 소리도 따른다. 이미 검찰에 소환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소문만으로도 고개를 들고 다니기 힘들어 할 사람들이 십 수 명이 있다. 이 사람들도 결국 단순하고 이유가 없

는, 아주 친숙하고 사소한 욕구로부터 지금 고개돌지 못할 상황까지 다다른 거라고 짐작된다.

문제는 욕심이다. 한때 업무혁신을 소리 높여 얘기하던 사람들이 모든 행정 용어 뒤에 '관리'를 붙여 인사관리, 생산관리, 리스크 관리, 혁신관리 식의 용어를 만들었다. 진정한 혁신이자 리스크 관리의 개인과 집단의 관리되지 못하는 욕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해마다 연초에 마음을 다잡고 아이들 앞에 약속하고 벽에다 써 붙이고, 마침내 사회 전체가 나서 금연건물이다, 뭐다 요란을 떨면서 '금연! 금연!' 하듯이 개인과 집단의 욕심과 욕구를 관리하는 '욕망 관리'가 사회적으로 절실한 시점이 바로 지금 아닌가 싶다.

'욕망을 관리하는 것.' 조심스럽지만 절집에서 밥먹고 사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바로 수행이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인 것 같다. 작고 사소한 문제인 '금연'도 계속 살피고 관리해도 쉽지 않은 질긴 욕망이다. 나아가 사회 전체에 만연한 이 거대한 물욕과 성욕의 덩어리들은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염기현 영성미디어대학 게임멀티미디어 교수

버거가는 산업이 되기를 고대한다. 2008년 세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3,443억불 규모중, 게임은 545억불이다. 그중 온라인 게임이 80억불이며, 평균 9%의 높은 성장률을 고려했다면 10년 후에는 시장 규모가 두배이상 커질 것이다. 시장 규모가 커지는 것도 하나의 기회다.

아웃 라이어가 되자

세계 각국이 초고속 통신망을 갖춰가면서 온라인 게임 시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찍이 초고속 국가통신망을 구축하여 경쟁력을 갖췄은 우리에게 더욱 큰 새로운 기회로 오고 있다. 곧 실용화될 IPTV도 새로운 게임발전 동력이 될 것이다. 지금은 거의 불모지인 기능성 게임도,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기회로 오고 있다. 기회를 차지하는 것은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구가하는 또 다른 아웃라이어(outlier, 성공의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가 되기를 희망한다.

기고

'경쟁'과 '위로'

필자는 동대신문의 애독자중 한명이다. 학교 안의 사건을 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이기 때문이다. 교수, 동문들의 칼럼이나 생각을 엿볼 수 있다는 점도 신문을 읽게 되는 이유였다.

또한 때때 기자들의 글, 생각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로운 점이였다. 1472호의 '한 사람의 열거를 보다 열사람의 한 걸음'이라는 칼럼은 내가 동대신문을 읽는 이유를 되새겨 줬다.

만약 일간지 데스크들이 칼럼을 봤다면 문제가 투박하고 황설수설한다고 타박을 줄 칼럼일지도 모른다. 나도 부분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글이 쉽게 읽히진 않았다. 자신의 개인사에서 학부제 문제로, 또 다시 공동체 문화와 4·19 등반대회 얘기까지, 사실 두 세 번 읽어봤던 것 같다.

글은 어설프지만 따스했다. 전라도가 고향인 필자에게도 칼럼 속 고향후배의 고민은 남 일이 아니었다. 고향후배의 고민을 듣고 저마다의 말하기를 멈추고 서로에게 버림목이 되자고 말하는 기자가 진정으로 고마웠다.

이 글은 우리 20대, 대학생들이 가장 우선으로 고민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이라는 단어를 매를 댔던 우리들에게 친구를 생각했던, 우리를

생각했던 시간은 얼마나 될까? '한사람의 열 걸음...' 칼럼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을 던져줬다고 생각한다.

'서울시내 대학가의 하숙·자취 실태'를 주제로 한 특집기사는 구체적 취재가 돋보였다. 특히 우리대학도 건설하기로 한 민자 기숙사에 대한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있었다. 기숙사가 부재했던 우리대학에 민자 기숙사 착공소식이 기뻐할 수만은 없는 현실을 알려줬다. 기숙사가 지어진다해도 학생들의 부담은 여전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학본부 차원에서도 중점적으로 봐야 할 내용이었다.

'김인식과 김성한'이라는 칼럼은 1472호 기사 중 가장 재밌게 읽었다. 조석규 선배의 시크한 매력마저 느껴졌다. WBC를 열띠게 응원했던 한사람으로서 준우승의 주역이었던 김인식 감독과 김성한 코치가 우리학교와 인연이 있다는 사실은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언택만 가파르지 비벼볼 데는 별로 없는 학교다'라고 말하면서도 학교가 자신에게 기대해 해보라는 문장에서는 학교사랑도 느낄 수 있었다.

필자의 대학생할 2년과 함께 한 동대신문. 메타리 칼럼에서처럼 함께 걸을 수 있는 동국인의 친구로 남아주길 바란다.

장희문 사회학과 3학년



보리수

불교와 나무

해주스님

불교대학 불교학과 교수



도인(道人)으로 널리 알려졌던 통도사 극락암 경봉(鏡峰, 1892 ~ 1982) 노스님께서 연세가 많으신 나이에 감나무를 심으셨다. 시자가 물었다. "스님 연세가 그리 높으신데 지금 나무를 심어 감을 따실 수 있겠습니까?" 경봉스님이 말씀하셨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어릴 때부터 감을 따먹은 나무는 내가 심은 나무가 아니다. 옛날 분들이 심어놓은 감나무에서 내가 감을 따 먹은 것이다. 그러니 내가 감나무를 심어 놓으면 뒷사람들이 나처럼 감을 따 것이 아니라." "고승열전 경봉스님"

금년에도 교정과 남산, 곳곳의 진달래와 벚꽃이 보는 이를 즐겁게 해준다. 봄철 나무 심는 날(식목일)이 다가온다. 나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 사찰조경에는 측백나무를 많이 심었다. 그것은 '정전백수자(庭前柏樹子)' 때문이다. 당나라 때 한 스님이 백림사(柏林寺) 관음원에 주석하시는데 조주(趙州) 스님에게, 달마 조사가 서쪽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까닭(祖師西來意)을 물었다. 조주 스님은 앞마당에 우뚝 서 있는 잣(측백) 나무를 가리키며, '뜰앞의 잣나무(庭前柏樹子)'라고 대답하였다. '무문론, 백암록' 중국과 한국의 조사선 전통은 바로 인도의 왕자로서 출가한 후 중국으로 건너와 선법을 전한 달마스

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그 '조사서래의'라는 말이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상영되기도 하였다.

나무의 의미를 되새겨볼 때 보리수(菩提樹)를 빼놓을 수 없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즉 보리를 얻으셨다고 해서 그 때부터 보리수라고 불리게 된 나무이다. 부처님과 매우 인연이 깊은 나무를 들면 탄생하시 때의 무우수, 어릴 때 정관에 잠겼던 염부수, 반열반하실 때의 사라스와 함께, 성도하신 때의 보리수가 대표된다고 하겠다. 부처님께서 6년동안의 고행이 잘못된 수행임을 아시고는 네란자라강에서 목욕하시고 유미족을 얻어 잡수시고 기력을 회복하셨다. 그리고 보리수나무 아래에 풀을 깔고 결가부좌하셨다. 도를 이루지 못하면 결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다짐하시고 명상에 잠기신지 오래지않아 드디어 성도하셨던 것이다.

교정에도 두 그루의 보리수가 정각원 앞에 심어져 있다. 금년에는 보리수가 곳곳에 더 많이 심어졌으면 한다. 그리하여 보리수 나무아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유하고 실천하며, 부처님처럼 깨달음(正覺)을 얻는 불자들이 많이 나오는 정각도량을 일구었으면 한다.



세상돌보기

누구를 위한 뉴타운인가?

영국의 뉴타운 법에 의하면 뉴타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다른 대도시 주변의 위성도시처럼 의존성 경제구조를 가지지 않고 독자적인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 주민들이 모두 그 도시 안에서 고용되고 필요한 생활 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다.

과연 21세기 한국판 뉴타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박종원(철학과 4학년)

2009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에서는 재학생들의 글쓰기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모전과 특강을 기획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http://writing.dongguk.edu / TEL : 2260-3380 FAX : 2260-3385

생각하는 코끼리 想像예찬, 2009-1 동국 글쓰기 공모전

제4회 동국 우수 보고서 공모

- 자 격 |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공모대상 | 2008년 2학기 / 2009년 1학기 교양 수업 보고서
●대상부문 | 감상문(특서감상문, 영화비평, 일반기행문) 일반보고서(그 외 일반)
●대상내역 | 최우수상 1명 300,000원
우수상 2명 각 200,000원
장려상 9명 각 100,000원

제3회 동국 독서와 글쓰기 공모

- 자 격 |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공모대상 | 자유부문 / 교양부문 부문별 도서 목록은 글쓰기센터 홈페이지 참조
●공모영역 | 독서감상문(A4 5~7매 내외의 자유 형식)
●대상내역 | 최우수상 1명 300,000원
우수상 2명 각 200,000원
장려상 5명 각 100,000원
●기념품 | 독서와 글쓰기 공모전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주머니 파일)을 증정합니다.

- 용모기간 | 2009년 4월 1일 ~ 6월 12일
■용모영역 | 글쓰기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
■결과발표 | 2009년 6월 중
■문의 |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전화 번호: 2260-3380)
■기 타 | 제출된 원고에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기입 바랍니다. [성명, 소속, 학번, 연락처, 이메일 주소(우수보고서의 경우 강좌명, 담당교수명도 기입)]

글쓰기센터 상담 프로그램

취업글쓰기 상담, 일반보고서 상담, 보고서집중 상담은 교양교육원 글쓰기센터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 또는 udriums를 통해 미리 상담 신청을 하고 예약된 날짜에 글쓰기센터로 찾아와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참조)

"아, 아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아, 아. 입학기획팀에서 알려드립니다. 자기추천 전형 입학생 여러분~, 개나리 피고 벚꽃 한창인 봄날에 우리 함께 만납시다."

자기추천 전형 입학생 여러분들과 입학기획팀 입학사정관들이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기존의 대입 선발방법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활동했던 내용들, 자기추천 전형을 준비하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봅시다. 우리 교육현실에서 곳곳에 꿈을 이루어 온 용기에 대해, 지금의 대학생활에 대해서도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봅시다.

- ▶ 일정: 2009년 4월 17일(금) 오후 4시 ~ 오후 6시 30분
▶ 장소: 우리대학 본관 4층 대회의실
▶ 준비물: 즐거운 마음과 자신의 이야기 보따리
▶ 기타문의사항: 입학기획팀 입학사정관 김경숙 (02-2260-3971)

입 학 처

금주의 식단

Table with 2 columns: Day (월, 화, 수, 목, 금) and Menu items (e.g., 점심전구(2000)/고구마토가스(3000)/체육비법(2200)/김치육개장(2500))

상록원

Table with 2 columns: Day (월, 화, 수, 목, 금) and Menu items (e.g., 참치야채볶음(2000)/콤바스(2500)/해물달걀(2200)/살랑탕(2500))

아리수

Table with 2 columns: Day (월, 화, 수, 목, 금) and Menu items (e.g., 닭갈비덮밥(2200)/오심볼고기덮밥(2200))

논단

짜퉁 잡세어링

최근 잡 세어링(job sharing)이라는 명분하에 대졸초임 임금 삭감 등이 재계, 공공부문 할 것 없이 전면화되고 있다.

노동자 목소리는 어디로...

한국판 잡 세어링, 그 시작은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한국노총과 경총, 정부와 뉴라이트 계열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2월 23일의 노사 민정합의였다.

경련에서는 2월 25일 30대 그룹 채용 담당 임원들이 모여 대졸 신입사원 연봉을 최고 28퍼센트까지 삭감하기로 하고, 기존 직원의 임금조정(삭감)을 통해 만들어진 자금으로 신규직원이나 인턴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짜퉁 일자리 나누기

이렇게 진행되는 한국판 잡세어링은 왜 허구적인가? 우선 잡세어링이란 기본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를 나누는 것, 즉 일자리 나누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가 아니라 임금삭감이 마치 일자리 나누기의 핵심인양 소개되고 있으니 허구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두 번째로는 임금삭감이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감소와 같이 진행되는 허구성이다.

파괴된 일자리에 대체되는 것은 6개월짜리 저임금 일자리인 '인턴' 사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일자리주론에 따라 삼성 2천 명, SK 1800명, 현대·기아차 1천 명 등 대기업에서 밝힌 인턴 채용 규모만 1만 명에 이른다.

소와 인턴 채용증가로 결국 지난 1년 사이에 팬클럽은 정규직 일자리가 1만명 이상 줄어든 것이다.

기업 배불리기 정책

이에 비해 기업들의 이윤은 여전히 장기호황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10대 그룹의 이익잉여금이 145조 5천억 원에 달하며 2008년 국내 1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17조 2천억 원, 현금성 자산은 47조 6천억 원에 달한다.

노동자와 청년의 희생과 고통만 강요하는 영터러 잡 세어링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한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사설

미래기획위원회 출범에 부처

우리대학의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게 될 미래기획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해 연말부터 우리대학의 장기적 비전을 마련할 태스크포스 구성이 논의되어오다 이번 미래기획위원회의 출범으로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번 미래기획위원회의 출범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로 급변하는 사회구조 변화와 대학을 둘러싼 교육환경 변화에 우리 대학이 취해야 할 비전과 전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미래기획위원회가 학내외의 갈등을 풀 수 있는 컨센서스의 장이 되어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우리는 이번 출범하는 미래기획위원회를 통한 비전의 마련이 동국대학교가 과거의 명성과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모든 일이 그렇듯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이번 미래기획위원회도 한 걸음에 모든 일을 해낼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출범하는 미래기획위원회를 통한 비전의 마련이 동국대학교가 과거의 명성과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메아리

진시황제의 말로

▲중국 최초의 통일을 이뤘던 진나라의 시황제는 아방궁을 짓는 한편 장강과 주강을 잇는 운하를 축조했다.

시황제는 또한 법을 매우 엄격히 적용했다. 백성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했고 한 사람이 죄에 연루되면 그 친족을 몰살시켰다.

▲이명박 정부가 항공기 안전성 문제 등으로 논란을 거듭하던 제 2롯데 월드

신축을 확정했다. 정부는 "제2 롯데월드 사업은 사업비 규모 1조 7000억원의 대규모 공사로 2만 3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5년간 제2롯데월드 건설을 반대해온 군관계자들의 의견은 다르다.

공군관계자들은 "구름 속이나 야간에 비행하기만 하며 활주로를 찾아 내려오는 조종사에게 초고층 빌딩은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래, 정부가 가장 크게 외치고 있는 구호는 '사회질서, 법질서 확립'이다.

강경진압, 집회시위법 개정 논의 등이 이뤄졌다. 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조직이나 단체는 여지없이 색출되고 검찰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제 2롯데 월드 신축허가는 달랐다. 15년 동안이나 군의 반대에 부딪혀 허가가 나지 않았던 건물이 정권교체 이후 불과 1년 만에 허가가 났다.

▲진시황제가 대륙을 통일했던 시기는 제자백가 시대였다. 그는 백가쟁명의



정동훈 편집장 gfd1226@dongguk.edu

만평

정명근 gmg@naver.com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오영교 편집인 김용현 편집장 정동훈

2009년 상반기 <영어권문화연구> 원고 모집 1. 학술지명: 영어권문화연구(여름호) 2. 일반주제: 인문학과 관련된 자유 주제

교양수학 튜터링 안내 1. 기간: 2008.03.09 ~ 06.19 2. 일시: 월~금, 오후 2~5시 3. 장소: 과학관 109호 교양수학/개인교습실

기업인사관리자 초청특강 성공적인 취업을 위하여 200대 기업인사관리자를 모시고 2009년 상반기 기업인사 관리자 초청특강 을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김지하 시인 특강 안내 동국대학교 생태환경연구센터에서는 본 연구기관의 석좌교수로 계신 김지하 시인을 모시고 '장기간 지속되는 생명지속성에 대하여' 라는 주제의 특강을 마련하였습니다.

동국아트컴퍼니 현장 스태프 김동현(연극4) 군

직접 몸으로 겪으며 이해하는 현장 스태프 인턴

“현장 인턴은 최고의 배우가 되기 위한 밑거름”

이해랑 예술극장에서 선보인 '진정엄마와 2박 3일'이란 연극이 흥행대박을 터뜨렸다. 305석의 좌석을 보유하고 있는 이해랑 예술극장의 전석 매진. 관객들의 성화에 힘 입은 공연은 전국 투어 공연 및 앵콜 공연, 3개월 동안 총 5억 원이라는 수익창출을 기록했다. 이렇듯 많은 기록을 세우며 '진정엄마와 2박 3일'이 막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 덕만이 아니다. 무대 뒤에서 누구보다 바빠 움직여온 현장 스태프, 그들이 있어 공연이 더욱 더 빛이 났다.



있어 지금은 현장 스태프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며 "무대 위의 배우와 현장 스태프들의 호흡이 일치 될 때야 말로 최고의 공연이 이뤄질 수 있다"고 현장 스태프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런 그가 스태프가 아닌 배우로서 무대에서 모습을 보인 공연은 얼마 전 막을 내린 '날 보러 와요'다. 학생자체 공연이었던 '날 보러 와요'에서 배우로 섰던 그는 자신의 연기에 대해 "아직 배우로서 갈 길이 멀다. 감정표현도 많이 부족하고 대사처리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표현했다. 배우가 되

우리대학에서 지난해 설립한 학교기업 동국아트컴퍼니는 한국산업기술포럼에서 주최한 학교기업 지원 사업에 선정돼 1년간 총 2억 4천 7백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스태프 인턴제를 시행하여 학생들이 더 많은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동국아트컴퍼니에서 현장 스태프 인턴 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동현 군을 만나봤다.

김동현 군은 연극학과 4학년에서 재학 중이다. 김동현 군은 이번 학기부터 학교기업 동국아트컴퍼니에서 인턴사원으로 일하고 있다. 김동현 군이 맡은 업무는 공연 제작 및 기획, 대개 공연 제작자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를 것이다. 공연 제작자란 TV 프로그램의 PD처럼 공연의 전반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공연에 참여할 배우들의 섭외 및 공연 스케줄 조정, 예산 조성과 홍보까지 연극 공연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김동현 군은 얼마 전 성황리에 막을 내린 공연 '진정엄마와 2박 3일'의 현장 스태프로 일을 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제작자 내 하우스매니저의 업무

를 담당했다. 스태프의 업무를 하며 가장 힘든 점은 당일 공연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는 일. 김동현군은 "공연에 있어 스태프의 실수는 곧 공연사고로 이어진다"며 "내가 맡았던 '진정엄마와 2박3일'의 공연에서는 다행스럽게도 공연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공연이 시작되면서부터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진정엄마와 2박3일'에 관하여 "처음 기획했을 당시 이같이 많은 관객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공연의 관람을 원하는 관객을 위해 방석과 보조의자까지 동원했지만 모든 관객들에게 공연을 보여주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웠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현 군의 꿈은 배우. 남들과는 다른, 남들보다 뛰어난 배우가 되기 위해 무대 위의 일이 아닌 무대 밖에서의 일을 먼저 배우길 원했던 김동현 군. 그는 "좋은 배우가 되려면 무대 위의 상황 뿐만 아니라 무대 밖의 일까지 알 필요가

김 꿈꾸는 김동현 군이 가장 좋아하는 배우는 김수로라고 한다. 처음엔 개그맨이 되길 원했던 그는 김수로를 역할모델로 정했다고 한다. 때론 코믹하고, 때론 진지할 수 있는 김수로의 연기가야말로 자신이 가장 추구했던 연기였다고 말이다. 배우가 되기 위해 스태프의 업무를 맡고 있는 김동현 군의 앞으로의 일정은 오는 25일부터 이해랑 예술극장에서 선보일 '순수의 어머니'의 공연 기획이다. 김 군은 이번 공연에 앞서 기획했던 동문 공연 '헛헛', '진정엄마와 2박 3일'에 이어 또 다시 히트를 칠 작품이라고 말한다. 또한 덧붙여 앞서 스태프로 참여했던 '진정엄마와 2박 3일' 공연에서 후회했던 많은 일들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한다. 현장 스태프로 일하며 공연장에서 관객과 함께 호흡하고 싶다는 김동현 군. 연극과 호흡하는 배우 김동현의 연기가 기대된다.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채현선 작가의 세상 느끼기

2. 아무것도 아닌, 특별할 것도 없는

어느 책에서 보니 '격려(encouragement)'라는 말은 라틴어의 '심장'에서 나왔다고 한다. 심장을 준다든가, 즉 뜨거운 심장을 주듯 마음을 담겨주는 것이 바로 격려다. 나는 마음과 마음이 맞닿아 온기가 일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꼭 맞는 단 하나의 열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어떤 분들과 식사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



"소설, 왜 써요?" 막연하고 당혹스럽게 느껴져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다. 격려를 받는 자리여서 더욱 그랬을 것이다. "쓰고 싶으니까 씁니다." 그분은 실망의 빛을 감추지 않았고 나는 애꿎은 젓가락질만 해냈다. 뭔가 특별한 소설적 답을 기대했을 것이다. 늘 그렇듯 사람들의 기대는 너무 크고, 내가 가진 것은 너무 작기만 하다. 그렇기에 나는 약자일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건 분명 명 패자는 아니라는 점이다. 소설 모임에서 합평을 하다 보면 종종 '푼크툼(punctum)'의 문제가 거론되곤 한다. 뾰족하고 예리하게 찌르는 힘, 즉 마음에 강렬하고 감동적인 인상을 남기는 예술적 소설이나 재능을 말한다. 천재가 아닌 이상 매번 감동적이고 기발하며 누가 본다 해도 좋은 작품을 쏟아낼 수는 없다. 쓰고 싶으니까 씁니다. 질문을 던진 그분에게는 건방지거나 멍청구리 같은 대답이었겠지만, 이 말은 정말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엄청나게, 진정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다.

내게 '소질'이나 '재능'은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 혹은 하고자 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다. 예술의 코드는 타인을 향한 위로이지만, 나는 단지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 하고 싶은 마음에서 얻는 '재능'이 어느 정도인가는 물론 자신의 몫이다. 그리고 나니 천재가 아니어도 괜찮아, 반짝거리지 않아도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소설가가 되었다고 해서 세계가 달라지는 일 따위는 없다는 걸 모르지도 않는다. 어느 누군가에게 내 소설은 아무것도 아닌, 특별할 것도 없는 까만 글자들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괜찮아. 다만, 상대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맞닿아 작은 불꽃이라도 일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특별할 것도 없는 게 아닌, 또 다른 무언가가 될 수 있는 촉박이 찾아와 준다면 더없이 감사할 일일 것이다. 꼭 맞는 단 하나의 '마음열쇠' 같은 것 말이다.

설명 그것이 터무니없는 바람일지라도, 생각대로 T. 채현선 문학예술대학원 재학 조선일보 신춘문예 소설부문 당선자



경기장 속 제 2의 감독 가드, 농구부 유망주 김윤태 선수 인터뷰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따라오지 않을까요?"

"아직 어려 경기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 지 모르겠지만 모든 경기에 최선을 다해 임해 최고의 성적을 이루겠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선배를 제치고 당당히 주전선수로 등록된 김윤태 선수. 그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농구선수로 활동했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가드로 활동했고 우리대학 농구부에서도 활동 중이라고. 김윤태 선수가 가장 존경하는 선수는 우리대학 출신의 가드 김승현 선수. 김승현 선수가 김승현 선수를 존경하는 이유는

"가드로써 팀 조율을 잘할 뿐만 아니라 화려한 플레이로 경기장을 누비는 모습이 멋있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연습벌레 김윤태 선수에게도 슬럼프가 있었다. 발목 부상으로 자칫 잘못하면 선수생활을 포기할 뻔했다고. 그러나 김 선수는 자신의 인생에 농구가 전부라는 마음으로 재활에 전념했다. 다른 선수들이 떠난 코트에서 재활훈련에 땀을 쏟았고 완쾌할 수 있었다. 김윤태 선수에게 농구란 인생의 시작이라 한다.

농구로 인해 진로를 결정하게 됐고, 농구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며, 농구를 통해 세상을 배워왔던 김윤태 선수에겐 말이다. 이런 김윤태 선수에게 한가지 고민이 있다면 다가오는 1학기 시즌이라고 한다. "지난 해까지 전력의 핵심을 이루던 선배들이 프로에 진출해 1학기 시즌에선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며 현 농구부의 상황을 걱정했다.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금주의 DUBS

사랑은 고차방정식



본 영상은 교육방송국 홈페이지 (http://www.dubscast.com)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 기획의도 - 사랑은 동서고금을 넘어서, 인류에게 가장 큰 가치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낭만적인 사랑을 꿈꾼다. 하지만 남녀사이에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는 허다하다. 그 트러블에서 나오는 사랑에 대한 고민을, 대학생의 시점에서 보다 명확하게 풀어보고자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사랑에 대한 고민을 무겁게 다루지 않고, 재밌으면서도 실용적이게 다루고자한다. 주의사항 : 우리의 해결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 PD : 오소정, 최아라 ENG : 김수민 ANN : 박용준

정각원 토요일 토요법회. 정각원 토요법회. 불교대학장 안내. 불교 입문반, 불교 성전반, 불교 경전반(신규개설), 어린이 불교영어 법회(신규개설), 삼천배 철야정진. 정각원 연락처: 02)2260-3016~8, http://jeonggak.dongguk.edu

'오천원의 나눔 두배의 기쁨' 연등달기. '부처님오신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정각원에서는 전 동국인 한동 달기를 지원하며, 교정 곳곳이 동국인 동참 발원 연등으로 환하게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소원발원 연등은 '부모님 건강 기원 등' '학업성취의 등' '화목한 가족을 위한 등' '학우간 우정의 등' '사랑 성취의 등' 달기를 아래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연등 동참금: 5천원, 연등접수처: - 현장 접수기간 및 장소: 2009. 4. 6(월) ~ 4. 24(금) 도서관 앞 11:00~15:00, - 정각원 사무실 방문 접수: 2009. 4. 6(월) ~ 5. 2(토) 09:00~17:00, 연락처: 정각원 사무실 ☎ 2260-3016-8, 장학금 관련 사항은 추후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2009년 상반기) 정각원